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세계 선교의 소망 안고 AMC 폐막



'90아시아선교대회가 “세계 선교는 우리가”라는 주제 아래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에 개회하여 닷새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31일 저녁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음서버 자격의 참가자를 포함한 50개국에서 1,302명이 참석하여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개최되어 실제 사역자들 대표가 모인 첫 집회였다.

이 대회는 각국 국기를 앞세우고 국가별로 입장한 선교사들과 충현의 성도들로 분당 1, 2층을 꽉 메운 가운데 시작된 개회예배는 M. 카스틸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준곤 목사, 이종윤 목사, 김영삼 장로의 인사가 있은 후, 이 대회의 위원장인 T. 윌리엄스 박사가 “아시아로부터 다른 대륙으로 한 바퀴 돈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로 다시 한번 전파될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하면서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회 이틀째인 28일부터는 C. 마란티카 박사와 T. 윌리엄스 박사가 구약, 신약 성경 강해를 했다. 28일과 29일에는 “선교사의 영적 생활”, “기도와 선교”, “선교에서의 여성”, “신학 교육에서의 선교” 등 선교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다룬 워크숍과 “불신자들에 대한 접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 “교회와 선교의 연합” 등 8차례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또 선교보고 시간에는 이은무 선교사(인도네시아), 강승삼 선교사(나이지리아), M. 스프트 선교사(볼리비아) 등 6명의 선교사가 자신들의 선교 활동 상황을 보고 하였고, 선교대회는 충현의 성도들도 동참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28일 선교대회 때는 J. 쾰다

박사가 “아시아인의 과제 - 선교”에 대해, 29일에는 P. 옥타비아 누스 박사가 “예수의 눈물”에 대해, 30일에는 P. 탕 박사가 설교를 하였다.

30일과 31일 밤에는 선교 헌신의 시간도 가졌는데, 참가자들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 김창인 목사가 집례한 성찬식도 은혜로웠다.

이번 '90아시아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데는 지난 8월 26일부터 전개된 속사도행전운동도 일조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되어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벽 기도의 운동이 아시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충현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0개국에서 모여온 2천여 명의 선교사와 목회자가 진행하는 '90아시아선교대회를 우리 교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충현을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원로 김창인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과 제직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7년 된 충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님을 자각하고 민족과 세계의 부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성숙한 교회상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뜻대가 되고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는 시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로서 말씀 파수에 목숨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범 교회로서 울려야 할 복소리도 우렁차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이외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진 충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현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9. 2

이 중 윤 목사

김창인 원로목사 귀국

김창인 원로목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간 미국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8월 29일 새벽,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심한 여독으로 심신이 피곤한 중에 계신 김 목사님을 위한 기도 를 아종운 위임목사는 온 교회에 당부하고 있다.

오는 9일에 제2학기 장학금 지급

90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지급이 오는 9월 9일 저녁 7시 찬양 예배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학생들은 9일 낮 12시까지 장학위원회 이종국 장로에게 제1학기 성적표를 제출하고, 오후 6시 30분까지 분당 로비에 모이기를 바란다.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 학 부

황옥진, 김형일, 홍경호, 송준엽,

정재용, 김정호, 김광식, 박충렬, 조석제, 오정성, 박은영, 김해영, 최소영, 이정은, 조성희, 장해진, 장명순, 이매리, 최연희, 이현주, 이명하, 백원옥, 이준우

●고 등 부

박지훈, 김성겸, 김영은, 김준환, 신익수, 강수진, 최해숙, 서선화, 서인해, 김은정, 김희진, 김선화

●중 등 부

박동석, 임성이, 안지호, 왕승원

교회 설립 제 37주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로 성장

우리 교회는 오늘로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는다.

18명의 성도가 모여 첫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은 2만여 성도가 양적 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역사를 이루었다.

특히 교육·선교·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전진하고 있으며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낮 예배는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저녁에는 축하 음악 예배가 있을 예정이다. 멘델

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 연주될 이 음악 예배는 최시원 감독의 지휘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예정이다.

첫째날

교회의 의무와 상급

(행16: 1~5)

본문에는 교회의 의무와 상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첫째,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고 가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운동

이 중 윤 목사



둘째, 교회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것도 먼저 행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피선교지에서의 문화적 차이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규례를 신실하게 지킴으로 복음에 유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넷째, 교회는 내적 신앙이 견고해지고,

외적으로는 부흥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의무를 다한 교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는 데로 거두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 이런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국 땅에 바울과 같이 사랑, 믿음, 소망,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날

마게도나인의 환상

(행16: 6~10)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성령이 이를 금하여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행 16: 7). 이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정책이나 목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목표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를 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두니아 선교를 위하여 길을 떠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셨습니다.

교회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서 기본적인 선교 정책이나 방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선교는 시대와 피선교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방 전도나 축회 전도는 한국적 상황

에 맞는 전도 방법입니다. 공산권 선교나 모슬렘권의 선교 전략도 이와 같이 피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교는 피선교지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 제국주의나 선교 식민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는 피선교지에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나갈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선교사들은 피선교지의 교회와 동역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선교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환상을 본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기 전까지 마게도나 선교를 전혀 생각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는 마게도나를 향한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선교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 자신의 필요나 의욕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과 소명감으로 준비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행 16: 10)

셋째날

열린 마음

(행16: 11~15)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나로 갈 때 지나가야 하는 첫 도성입니다.

우리들은 본문에서 마게도나인의 환상을 본 이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나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

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준비가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유럽의 문화는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혹자는 이런 문화적 습성이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다가 한 무리의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

나님 앞에서의 기도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루디아의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 받을 기경하고, 곧게 하여 승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열린 마음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인행일치의 생활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행일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넷째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행16: 16~35)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점장이는 여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증거하고, 주인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장이가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귀신들린 이 점장이가 하나님을 증거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

다고 이를 단순히 위선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선생님”이라는 존경의 의미가 배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백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선교하는 자들의 생활에 교훈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다가 그 점장이 여인을 본 바울은 여지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와 하였습니다. 그는 불행울

당하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이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습니다(행 16: 18)

선교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비천한 점장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 아니라, 회생까지 시켰으나, 사람들로 부터 무서운 폭행을 당했습니다(행 16: 23).

선교사들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했습

니다.

바울이 점장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도망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모두 도망한 줄로 안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는 본 바울은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행 16: 28~32).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최악의 시간, 장소, 사건을, 최선의 시간, 장소, 사건으로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교회 탐방

산호교회를 다녀와서

바울전도회 제13지회

지난 7월 24일 무덥고 끈끈한 우중임에도 바울전도회 제13지회 회원들은 지원교회를 탐방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천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차량부에서 봉사하시는 최진설 집사님께서는 시계 불량의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셨다.

전도회 회원들이 강원도 화천군 용호리 소재 산호교회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 반이 훨씬 지나서였다.

산호교회의 채철석 목사님과 김두봉, 송민석 두 분 장로님께서는 빗 속에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용호리 54세대 가운데, 29세대가 산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산호교회의 교인들은 장년 35명, 중고등부 학생이 15명으로 이들 가운데 세례교인이 25명이 된다.

예배를 드린 후, 그곳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는 도중, 김두봉 장로님께서 담배 농사를 짓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채철석 목사님께서

담배 재배는 죄를 기르는 농사이므로 담배 재배를 반대하셨다.

그런데 김 장로님께서서는 이 충고를 듣지 않고, 기어코 농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잘되어 가는 것 같아 기뻐했으나, 추수하여 곳간에 들여 놓은 것이 모두 썩어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밭만여 평을 사서 고냉지 채소를 심어 풍성한 수확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작물도 썩고 장로님의 마음도 썩었지만, 순종하고 보니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다.

산호교회를 중심으로 4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마을들이 3, 4호씩 산재하고 있어서 차량만 확보된다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채 목사님의 설명이었다. 우리들은 7, 8월분의 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한 후 산호교회 교인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서울로 향했다.

91년도 신입 임직자 후보 교육 6일과 7일에

성경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과 18일에 당회가 면접한 91학도 남녀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들에 대한 교육을 오는 9월 6일과 7일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은 신입 임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연구원은 이 교육을 위하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청지기, 생활의 모범

이 되는 청지기, 섬김의 모범이 되는 청지기”라는 교육 목표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라는 주제 성구를 정하였다.

교육은 9월 6일과 7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두 차례로 나누어 두 시간씩 실시되는데, 해당되는 성도들은 형편에 따라 오전반과 오후반 중 택하여 교육을 받으면 된다.

AD 2천년 운동본부 기자회견 가져 조찬기도회도

지난 8월 28일 이종운 위임목사는 AD 2천년 운동본부 총재인 토마스 왕 목사와 21세기를 향한 세계복음화 지구촌대회의 대회장 루이스 부시 목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종운 위임목사 등은 교계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들에게 오는 94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될 제2차 21세기를

향한 세계복음화 지구촌대회의 성격과 의미, 목표 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였다.

한편 29일에는 이종운 위임목사, 김준곤 목사, 조종남 목사, 김명혁 목사, 로봉린 목사, 토마스 왕 목사, 루이스 부시 목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제2차 21세기를 향한 세계복음화 지구촌대회를 위한 조찬기도회도 가졌다.

《소선지서 강해》출간

이종운 위임목사가 새벽 강단에 서 심혈을 기울여 증거했던 《소선지서 강해》가 568면의 장편으로 출간되었다.

성도의 삶의 현장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울려주는 이 책은 강해자의 열정이 깃들여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한편 4월 20일에 초판 발행되었던 《순례자》가 6월 20일 재판 발행되었고, 5월 30일 초판 발행되었던 《빌립보서 강해》가 7월 30일 재판되어 독자들의 일독을 기다리고 있다.

초등 3, 4부 글짓기 대회 열어

초등3부와 4부는 지난 8월 26일 예배 후 글짓기 대회를 실시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전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글짓기 대회는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는 연중 행사의 하나로 어린이들의 발표력 향상과 신앙 생활에 대한 다짐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

■ 초등1부 글짓기 대회 최우수작

우리 선생님

조현주

우리 선생님은 착실하고 참이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가르쳐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주일마다 날 데리고 오셨고 친엄마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나는 엄마가 없어 선생님이 옷도 주셨고 예뻐해주셨습니다.

난 그때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교회에 올 때에도 돈도 다 내 주었고 선생님의 딸 수은이 언니와 해은이 언니도 나를 예뻐해주셨어요.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착한 마음, 고운 마음이 되어 선생님을 닮겠습니다.

소망부

김재창 파라과이 선교사 초청 강연

소망부는 지난 8월 26일 오후에 갈릴리 홀에서 김재창 파라과이 선교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열었다.

김 선교사는 파라과이에서의 선교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이사

야 35장 10절을 중심으로 “사온에 이르러”라는 설교를 하였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김 선교사는 “기쁨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시온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세기 등

“잔치가 끝난 뒤에”



김해규 목사

지난 주일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 갔다가 브라질에서 온 몇 사람의 방문객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국수 먹는데 쓰는 젓가락을 기념으로 가져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물었다. 이 젓가락을 기념품 삼아 가져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직도 나는 왜 그들이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번 '90아시아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는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우리 가운데 피곤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45개 국에서 모여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와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 6·25동란, 그 이후의 정치적 혼란 등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총회교회를 영육간에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헌금을 많이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땀을 많이 흘렸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의 초라했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손님들은 다 돌아갔다. 설겅이도 해야 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집안 단속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첫째로, 세계 선교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안 되며 세계 선교를 주

관하지는 하나님의 뜻과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에 선교 역사의 또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겠다.

둘째로, 아시아의 고난과 궁핍에 동참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내가 은혜받기 위해 예수 믿는 일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격려가 된다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로,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줄 수 있는가를 반성했으면 한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 주지는 데는 다 같은 생각이라. 개인이든 단체든 세월이 지나면 격려와 전통은 쌓여가지만 감격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예배소교회도 그러했다.

이 후로는 이번 대회의 의도처럼 말씀을 초신자처럼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밤낮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위해서 겸손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호 세기등은 최인근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본 AMC “세계 선교는 우리가”



개회를 알리는 힘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원방송성경이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운집한 본당 뒤편으로 들어서자, 박수와 환성으로 AMC의 개회를 축하하였다.



아시아 50개국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도자들이 참석했던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장 앞거리에서 각 민족의 고유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세계 선교는 아시아인의 공동 과제임을 상기라도 시키듯, 개회식에서 AMC 임원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마주잡았다.



“21세기를 향한 소망과 영적 운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의 노력, 어떤 기도와 헌신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선교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담은 사진, 전지도를 전시하기도 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참가한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6 과 성찬

성경 : 고전 11 : 23, 34

요절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 : 26)

찬송 : 196, 280

제 96 문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때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제 97 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

각과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심이 자기에게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정죄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설 명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을 나누는 성도들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구속의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질 문

1.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마 26 : 26 ~ 29; 눅 22 : 19, 20)?
2.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고전 11 : 27 ~ 29)?
3.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를 읽고 난 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해 봅시다.